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강 유 진*

초 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 가족, 학교 요인의 스트레스의 중재효과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때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모·학업 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외모·물질스트레스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의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중 2005년도 초등학생 2차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초등학생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2,556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스트레스 영역에서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중요한 요인은 주로 학교관련 요인이었으며, 이 중 학교 친구애착과 성적의 역할이 중요했다. 둘째, 자존감, 소득, 학교친구애착의 경우,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성적의 경우 오히려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효과에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족,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초등학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중재효과, 스트레스 보호과정, 취약과정

* 한세대학교 경찰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전임강사

I. 문제제기

성인이 되어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볼 때 흔히 아동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떠올리기 쉽다. 성인기 이후에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반면,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스트레스와 위기에 덜 노출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생활만족도를 증진 시키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성인기 혹은 성인기 이후에 집중된 경향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도한 학업부담,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들이 점차 초등학교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등 인생 초기의 생활만족도가 어떠하며 관련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박영신 외, 1999; 박영신 외, 2000; 임미향 외 2006; Marriage & Cummins, 2004; Valois et al., 2001; Young et al., 1995).

생활만족도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한다(Valois et al., 2001). 개인, 가족,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통해 내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주관적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활만족도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러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Huebner, 2004; Valois et al., 2001)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질, 성격 등 개인적 요인, 가족의 경제적 환경 및 부모관계 등의 가족환경, 학업성취 및 또래 관계 등의 학교환경, 부정적 생활사건 등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들은(신정미, 황혜원, 2006; 장영애, 손영미, 2006; 황혜정, 2006; Walker & Greene, 1987; Zimmerman et al., 2000) 스트레스가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부적응 문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오늘날 과도한 공부압력,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경쟁과 성취욕구, 물질주의, 학교폭력 등이 점차 초등학생의 삶에까지 스며들면서 우리 사회 초등학

생들에게 ‘공부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동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야 삶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과연 개인의 삶의 적응에 미치는 위기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똑같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의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을 밝히는데 관심을 둔 것이다(신정이, 황혜원, 2006; 장영애 손영미, 2006; 정동화, 1997; 황혜정, 김순자, 2001; Dumont & Provost, 1999; Walker & Greene, 1987; Wheaton, 1985; Zimmerman et al, 2000).

더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Li et al, 2007; Luthar, 1991, Luthar et al., 2000) 위기를 중재하는 요인들의 중재과정을 단순히 위기를 완화하는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중재과정은 대략 보호과정(protective)과 취약과정(vulnerability)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보호과정(protective process)이란 중재요인의 작용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가능한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취약과정(vulnerability process)이란 보호과정과 반대로 중재요인이 작용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과정이다. 결국 이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들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는 중재요인의 작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패턴의 중재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스트레스 보호요인들이 우리 사회의 초등학생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스트레스 중재효과가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영역에서 어떻게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특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개인, 가족, 학교요인에 의해 어떻게 중재되는지, 특히 중재요인들의 중재패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스트레스의 각 하위 영역별로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일상적인 생활요인이 되었다고 할 때, 초등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주관적인 지각을 말한다. 이 때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이란 특정 삶의 영역, 예를 들면 직장이나 결혼 등을 지칭하기보다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전반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즉 만족스러운지, 혹은 불만족스러운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Ehrhardt, 2000).

이처럼 생활만족도를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개념에 초점을 둘 경우, 이것의 측정은 특정 삶의 영역(학교, 가족, 친구 등)마다 만족감을 측정하는 다영역적 측정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단일영역의 측정방식을 선호한다. 단일영역의 측정방식은 가능한 한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global satisfaction)을 측정하는데 충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택한다. 첫째는 전반적 삶의 만족감을 묻는 각각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총합을 내는 방식이며, 둘째는 한 문항으로 직접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묻는 방식이다¹⁾. 초등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 방식의 척도를 모두 적용할 경우, 두 척도는 상호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된다(Huebner, 2004).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곽수란, 2007; Flouri & Buchnan, 2000; Huebner, 2004),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학생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우울감, 긴장, 스트레스, 학교일탈 등의 요인들은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이며(Adelman et al., 1989; Greenspoon & Saklofske, 1997; Gullone & Cummins, 1999; Shek, 1992),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사회적 지원 등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들로 밝혀져 왔다(Huebner et al., 2000; Leung & Leung, 1992; Young et al., 1995).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작용과 이것을 증재하는 증재요인의 작용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갖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만족도 연구들이 이혼가정 등 박탈된 환경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을 초점으로 하여 학업스트레스 혹은 학업성취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측정에 있어서도 직접 학생들에게 생활만족도를 묻기보다는 학업성취나 우울, 심리적 적응 등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 의존하였다는 지적이다(Marriage & Cummins,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적 범위의 보통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직접 생활만족도를 질문한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 초등학생들의 생활만족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한 문항척도를 사용한 생활만족도연구들로는 곽수란(2007), 에어하트와 동료들(Ehrhardt et al., 2000), 플러리와 뷔하난(Flouri & Buchnan, 2000)의 연구 등이 있다.

2. 스트레스 중재효과

1) 보호과정(protective process)과 취약과정(vulnerability process)

스트레스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중재요인에 주목한다. 스트레스가 개인의 삶에 위기와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 정도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스트레스의 중재효과에 관심을 두고, 개인이 위기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위해 어떤 종류의 보호요인이 필요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신정이, 황혜원, 2006; 황혜정, 김순자, 2001; Dumont & Provost, 1999; Walker & Greene, 1987; Wheaton, 1985; Zimmerman et al., 2000).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위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중재요인의 패턴이 매우 다양함을 보고한다. 예를 들면, 루타와 동료들은(Luthar, S.S. et al.) 다양한 스트레스 중재과정을 크게 보호과정(protective)과 취약과정(vulnerability)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Luthar, 1999; Luthar et al., 2000). 보호과정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반적인 중재효과가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를 말하며, 취약과정이란 스트레스 중재효과가 오히려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리와 동료들은(Li, S. T. et al.) 위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와 보호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Li, et al., 2007). 특히 이들은 보호요인의 존재할 때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는데 불구하고, 만약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아진다면 오히려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과정을 '위기압도과정(overwhelming-risk)'으로 재명명하여 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스트레스 중재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처럼, 초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들의 중재방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중재과정에서 중재요인들의 보호작용과 취약작용 등 선행연구들을 통해 규명된 중재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보호작용을 하며, 어떤 요인들이 취약작용 역할을 할 것인지 규명해볼 것이다.

2) 스트레스 중재요인

기존 연구들은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개인내적 자원 및 개인을 둘러싼 환경, 즉 가족,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 중 생활만족도와 상호관련성이 높으면서 위기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개인, 가족,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개인내적 요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 즉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말한다. 이것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신정이, 황혜원, 2006; 윤신기, 2004; 장영애, 손영미, 2006; 정동화, 1997; 황혜정, 김순자, 2001; Dumont & Provost, 1999; Brenda et al., 1997; Li et al, 2007)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한다고 일관적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는 개인 내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이 아동이 긍정적 생활만족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과연 위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편,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성인의 경우,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회적, 심리적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가 보고되지만(Walker & Greene, 1987)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성별이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반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장영애, 손영미, 2006; 황혜정, 김순자, 2001; Walker & Greene, 1987).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써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초등학생을 둘러싼 가족환경에서 스트레스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행연구들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 지원을 받고 친밀감을 느낀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박영신 외, 2000; 정연옥, 이민규, 2006; Young et al., 1995).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맺은 강한 유대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보호요인이라는 것이다(신정이, 황혜원, 2006; 정동화, 1997; 황창순, 2006; Li et al., 2007; Walker & Greene, 1987). 본 연구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유대감을 ‘부모애착’요인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지위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취 등 학교적응의 문제에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강유진·문재우, 2005; 김경신, 1995; 박현선, 1998). 이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족소득, 부모교육수준, 부모직업 등의 세 가지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는 특히 가족소득요인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으면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중 가족소득만을 스트레스 중재요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²⁾. 선행연구들에 의하면(신정이·황혜원, 2006; Pungello et al., 1996) 저소득 청소년들이 일반집단의 청소년보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지위 요인 중 가족의 소득을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스트레스와의 상호관련성을 통해 복합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요인으로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셋째, 학교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중재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또래, 교사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형성된 친밀감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박영신 외, 1999; Dumont & Provost, 1999). 또래와의 우정을 통한 친밀감, 애착의 형성은 부모와의 불완전애착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아동이 위기를 경험할 때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지지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황창순, 2006).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적응이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고

2) 과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족소득, 부모교육수준, 부모직업지위의 요인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즉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합산할 것인지, 혹은 각각을 측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측정의 문제, 요인들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문제, 데이터 속성 등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변수를 가족의 경제적 지위로써 선택하는 경향이다(Bradley & Corwyn, 2002).

보고되어 왔다(김희수, 윤은중, 2004; 문은식, 김충희, 2002; 백혜정, 2007; 이경아, 정현희, 1999; 조미형 외, 2006). 즉, 교사가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고 할 때(정동화, 1997), 교사와의 애착관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학교 환경의 또 다른 스트레스 중재요인으로서 학업성취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사회와 같이 성적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학업성적은 학생들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영신 외, 2000; Chang et al, 2003; Leung & Leung, 1992).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중·고등학교를 넘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업성취 관련 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된 경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초등학생들에게 있어 학업성취가 스트레스의 효과를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 중 2005년도 초등학생 2차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4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패널조사에서 응답한 학생들을 2005년도에 다시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추적조사 방법은 초등학생의 경우 개인별 추적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전화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05년 초등학생 2차년 조사의 표본 유지비율은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조사대상 패널수(2,844명) 대비 조사성공사례수(2,707명) 비율이 95.2%에 달했다.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초·중고생의 직업 및 진로, 여가, 일탈행동, 자아관, 심리적 적응 등 폭넓은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

도를 제외한 전국 특별시, 광역시·도별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통해 2003년부터 연 1회 추적조사를 통해 꾸준히 구축되고 있는 전국적 범위의 유일한 종단 자료로서 자료의 해석 및 일반화에 큰 장점을 갖는다(김선숙, 고미선, 2007).

본 연구는 이 자료 중 현재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남녀 초등학교 2,55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포함된 초등학교생들은 남학생이 1,363명(53.3%), 여학생이 1193명(46.7%)이었다. 그리고 부모와 모두 함께 사는 학생은 2,471명(96.7%), 아버지만 함께 사는 학생은 30명(1.2%), 어머니만 함께 사는 학생은 55명(2.2%)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이다. 이것의 측정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 문항 중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중재요인, 그리고 통제변수인 성별 등이다. 첫째, 스트레스 요인의 경우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묻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7$ 이다. 또한 스트레스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각각 구분되는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선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KMO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1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며, 본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수치를 확인한 결과, 근사카이제곱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세 가지

요인들은 요인 I은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 요인 II는 '친구스트레스', 요인 III은 '외모 및 물질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³⁾.

둘째, 스트레스 중재요인으로서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을 사용하였다. 개인요인으로서는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으로서는 부모애착과 가족소득, 학교요인으로서는 학교친구애착, 교사애착, 성적을 포함시켰다. 이 요인들의 측정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조사표 중 자아존중감 6문항, 부모애착 6문항, 학교친구애착 3문항, 교사애착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적은 질문지 중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성적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평가로써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은 질문지 문항 중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통제변수로 사용된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일 경우 1점, 여학생일 경우 0점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3)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내 용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1.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음	.801		
2.부모님과 의견충돌로 스트레스 받음	.772		
3.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 받음	.778		
4.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 받음	.698		
5.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음	.692		
6.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669		
7.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 받음	.634		
11.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 받음		.572	
12.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 받음		.627	
13.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687	
14.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음		.764	
15.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음		.744	
16.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음		.715	
8.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받음			.841
9.친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음			.845
10.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스트레스 받음			.657
고유값	4.141	3.442	2.409
설명된 분산(%)	25.883	25.512	62.454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초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전반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들의 중재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독립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 수준

조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전반적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

구 분	전체평균 범위(1-5)	성 별		F
		남 M(SD)	여 M(SD)	
생활 만족도	3.95	3.94	3.96	.166
스트레스	1.98	1.95	2.01	3.733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	2.18	2.18	2.17	.006
친구스트레스	1.75	1.74	1.75	.011
외모 및 물질스트레스	1.87	1.80	1.95	22.828***

*p<.01 **p<.05 ***p<.001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 전체 평균이 3.95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평균은 1.98로 나타났다. 이것을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이 2.18이며, '친구스트레스' 영역의 평균은 1.75, '외모 및 물질스트레스' 영역의 평균은 1.87이었다.

한편,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성별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외모스트레스 영역만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중재과정 :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이것을 중재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중재과정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키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과 스트레스를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독립변수로서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후(모델1),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중재요인으로서 개인요인(자존감), 가족요인(부모애착, 가족소득), 학교요인(친구애착, 교사애착, 성적)을 분석에 포함시켰다(모델2).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중재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여 이것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모델3)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중재요인

세 가지 스트레스 하위영역을 총합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영역에서 개인, 가족, 학

4)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에 투입할 경우,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정연옥·이민규, 2006; Agnew et al., 2002; Flouri & Bouchanan, 2002; Walker & Green, 1987)들이 제안한 대로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기 전에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하였다. 즉, 각 변수들의 점수에서 각각 평균을 빼는 방식으로 변수들을 표준화 한 후, 표준화된 스트레스점수와 표준화된 중재변수의 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항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VIF 검증을 통해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관련 중재요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중재변인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 1과, 모델 2의 분석 결과,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성별과 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재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중재변인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킨 모델 3을 통해 어떤 요인이 스트레스 효과를 중재하며, 중재과정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존감, 소득, 학교친구애착, 성적과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상호작용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 효과를 중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⁵⁾. 그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생활만족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자존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생활만족도의 하락폭이 다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행연구(Li et al., 2007)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protective process)으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과 학교친구 애착 역시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호하는 중재역할(protective process)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

5) 선행연구는(Agnew et al., 2002) 에이킨과 웨스트(Aiken, L. S. & West, S. G.)가 제안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중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사용하여 보다 간편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y = \beta_1 X + \beta_2 XZ$, 즉 $y = (\beta_1 + \beta_2 Z)X$ 이다. 이때, β_1 =예언변인인 X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_2 =상호작용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Z는 중재변인이다. 이것을 본 연구의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상호작용효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 $\beta_1(\text{스트레스}) + \beta_2(\text{스트레스})(\text{자존감})$. β_1 =스트레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_2 =상호작용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말한다. 이것은 다시 삶의 만족도 = $(\beta_1 + \beta_2 \times \text{자존감})(\text{스트레스})$ 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계산식을 통해 중재요인(자존감)의 변화하는 수준에 따라 예언변인(스트레스)이 종속변수(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1SD),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204(-.246+.042×1)이며, 자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1SD) -.282(-.246+.042×(-1))로 나타났다.

이 높고 학교친구애착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고 있다⁶⁾.

<표 2> 전반적 스트레스 및 개인, 가족, 학교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

요 인	모델 1(β)	모델 2(β)	모델 3(β)
성 별	-.023	.016	-.018
스트레스(A)	-.426***	-.256***	-.246***
자존감(B)		.166***	.165***
부모애착(C)		.127***	.129***
소 득(D)		.029	.028***
친구애착(E)		.106***	.107***
교사애착(F)		.056**	.055**
성 적(G)		.072***	.073
A×B			.042*
A×C			.030
A×D			.042*
A×E			.054**
A×F			-.029
A×G			-.049*
R ²	.181	.283	.290
ΔR^2	.181	.101	.008
F변화량	256.279***	54.238***	4.122***

성별 : 남=1, 여=0 *p<.01 **p<.05 ***p<.001

반면, 스트레스에 대한 성적의 중재효과는 이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성적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커짐을 보여 준다⁷⁾. 즉, 스트레스와 기타 요인들의 효과가 통제되면(모델2)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던 것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을 복

6) 소득이 낮을 때(-1SD)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282(-.246+.042 \times (-1))$ 이지만, 소득이 높을 경우(+1SD)에는 $-.204(-.246+.042 \times 1)$ 였으며, 학교애착이 높은 집단(+1SD)에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192(-.246+.054 \times 1)$ 인 반면, 학교친구애착이 낮은 집단(-1SD)에서는 $-.300(-.246+.054 \times (-1))$ 이었기 때문이다.

7) 성적이 높은 집단의 경우(+1SD),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295(-.246+(-.049) \times 1)$ 인 반면, 성적이 낮은 집단(-1SD)의 경우 $-.197(-.246+(-.049) \times (-1))$ 로 나타났다.

합적으로 고려할 경우(모델3) 성적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더욱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높은 인지수준은 스트레스를 중재하는데 있어 취약과정(vulnerability) 패턴을 보인다는 선행연구(Luthar, 1991)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라 하겠다.

정리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존감, 소득, 학교친구애착요인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 즉 보호(protective) 역할을 하였음에 비해, 성적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중재역할(vulnerability)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학업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중재요인

부모·학업스트레스 영역에서 개인, 가족, 학교관련 중재변인들의 스트레스 중재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부모·학업스트레스와 중재변인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 1과, 모델 2의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성별과 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재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학업스트레스와 중재변인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킨 모델 3의 결과를 보면, 소득, 학교친구애착, 선생애착, 성적이 부모·학업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요인들이 부모·학업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과 학교애착 요인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방향, 즉 보호과정(protective process)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⁸⁾. 즉,

8) 소득이 높은 집단(+1SD)과 소득이 낮은 집단(-1SD)에서 부모·학업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 $-.178(-.221+, .043 \times 1)$, $-.264(-.221+, .043 \times (-1))$ 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애착이 높은 집단(+1SD)과 낮은 집단(-1SD)에서 부모 및 학업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65(-.221+, .056 \times 1)$ 와 $-.277(-.221+, .056 \times (-1))$ 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부모·학업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221$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이 낮고 학교애착이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고 학교애착이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커져서 생활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반대로 소득과 학교애착이 높은 집단은,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삶의 만족도의 감소정도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3> 부모·학업스트레스 및 개인, 가족, 학교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

요 인	모델 1(β)	모델 2(β)	모델 3(β)
성 별	-.004	.030	-.032
부모 및 학업스트레스(A)	-.391***	-.226***	-.221***
자존감(B)		.178***	.179***
부모애착(C)		.132***	.135***
소 득(D)		.029	.026
친구애착(E)		.122***	.121***
교사애착(F)		.055**	.055**
성 적(G)		.073***	.071***
A×B			.039
A×C			.020
A×D			.043*
A×E			.056**
A×F			-.041*
A×G			-.040*
R ²	.153	.273	.280
ΔR^2	.153	.120	.007
F변화량	209.905***	63.898***	4.011**

성별 : 남=1, 여=0 *p<.01 **p<.05 ***p<.001

반면, 교사애착과 성적의 스트레스 중재효과는 앞의 소득, 학교애착의 중재효과와 상이한 방향, 즉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드는 취약과정(vulnerability)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사애착과 성적이 높은 집단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서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⁹⁾.

정리하면, 부모·학업스트레스 영역에서 소득과 학교친구애착수준의 증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보호작용(protective)의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교사애착과 성적수준의 증가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서

9) 교사애착과 성적이 높은 집단(+1SD)과 낮은 집단(-1SD)에서 부모·학업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애착의 경우 각각 -.262(+1SD)와 -.180(-1SD), 성적의 경우 각각 .261(+1SD)과 -.181(-1SD)이었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 즉 취약작용(vulnerability)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생님의 기대를 많이 받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교 및 가족으로부터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부압력 및 이와 관련된 부모와의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이 가중되면 자신의 삶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친구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중재요인

친구스트레스 영역에서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의 중재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친구스트레스와 중재변인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 1과, 모델 2의 분석 결과, 다른 스트레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입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의 중재요인들은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4> 친구스트레스 및 개인, 가족, 학교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

요 인	모델 1(β)	모델 2(β)	모델 3(β)
성 별	-.008	.031	.033
친구스트레스(A)	-.349***	-.180***	-.169***
자존감(B)		.199***	.198***
부모애착(C)		.165***	.167***
소 득(D)		.021	.021
친구애착(E)		.090***	.091***
교사애착(F)		.064**	.059**
성 적(G)		.069**	.070***
A×B			.035
A×C			.005
A×D			.022
A×E			.024
A×F			-.039*
A×G			-.020
R ²	.122	.258	.261
ΔR^2	.122	.136	.003
F변화량	162.046***	70.813***	1.603

성별 : 남=1, 여=0 *p<.01 **p<.05 ***p<.001

둘째, 친구스트레스와 조절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킨 모델 3의 경우 상호작용 항의 투입으로 인한 전체 설명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만큼 상호작용 항의 통계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중재요인들의 친구스트레스 중재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 외모·물질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외모·물질스트레스 영역에서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들의 스트레스 중재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외모·물질스트레스와 중재변인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 1과, 모델 2의 경우, 다른 스트레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입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모·물질스트레스의 수준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 성적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모·물질스트레스와 중재변인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킨 모델 3의 결과를 보면, 학교친구애착과 성적의 스트레스 중재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이 외모·물질스트레스를 어떻게 중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친구애착의 경우, 외모·물질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친구애착이 낮은 집단에서 외모 및 물질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며, 학교친구애착이 높은 집단의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는 다소 완화됨을 알 수 있다¹⁰⁾. 즉, 학교친구애착은 외모·물질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데 있어서 보호요인(protective process)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외모·물질스트레스에 대한 성적의 중재효과는 학교애착의 보호효과와 상이한

10) 외모·물질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친구애착이 높은 집단(+1SD)의 경우 $-.128(-.173+.045 \times 1)$, 학교친구애착이 낮은 집단(-1SD)이 $-.218(-.173+.045 \times (-1))$ 이다. 다른 모든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외모 및 물질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173$ 임을 고려한다면, 학교친구애착인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활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물질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분명히 나타남을 보여 준다¹¹⁾. 즉, 성적의 중재효과는 외모·물질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취약(vulnerability)작용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5> 외모·물질스트레스 및 개인, 가족, 학교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

요 인	모델 1(β)	모델 2(β)	모델 3(β)
성 별	-.037	.015	-.018
외모 및 물질스트레스(A)	-.335***	-.183***	-.173***
자존감(B)		.198***	.198***
부모애착(C)		.153***	.154***
소 득(D)		.026	.027
친구애착(E)		.122***	.124***
교사애착(F)		.058**	.062**
성 적(G)		.063***	.069**
A×B			.037
A×C			.031
A×D			.020
A×E			.045*
A×F			.000
A×G			-.048*
R ²	.111	.259	.265
△R ²	.111	.148	.006
F변화량	145.446***	77.372***	3.001**

성별 : 남=1, 여=0 *p<.01 **p<.05 ***p<.001

11) 외모·물질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적이 높은 집단의 경우-.221(-.173+-.048×1), 성적이 낮은 집단의 경우 -.125(-.173+.045×(-1))이었다.

V. 맺는말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규모의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의 중재과정이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즉 보호작용(protective)을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으며, 취약작용(vulnerability)을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 등 세 가지 영역의 별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과정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Li et al., 2007; Luthar, 1991; Luthar et al., 2000)각 스트레스 영역마다 개인, 가족, 학교의 중재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들의 중재과정은 보호과정과 취약과정 등 서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경우, 자존감, 소득, 학교친구애착, 성적이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자존감, 소득, 학교친구애착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의 경우 오히려 성적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만족도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성적은 스트레스를 중재하는데 있어서 취약작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학업스트레스 영역의 경우,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은 소득, 학교친구애착, 교사애착, 성적이었다. 이 중,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역할, 즉 보호작용을 하는 요인은 소득과 학교친구애착이었다. 반면, 교사애착과 성적의 경우 스트레스의 효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취약작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애착과 성적이 높은 집단이 부모·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스트레스의 경우, 다른 스트레스 영역과 달리 중재요인들의 중재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모·물질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학교친구애착과 성적이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 때 학교친구애착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보호작용을 함에 비해, 성적의 경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각 스트레스영역을 통틀어 개인, 가족, 학교요인 중 학교요인, 즉 학교친구애착, 교사애착, 성적의 스트레스 중재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학교친구애착과 성적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학교친구애착의 경우, 대부분의 스트레스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황창순, 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갈수록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생활만족에 더욱 중요해져서,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성적은 대부분의 스트레스 영역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가중시키는 취약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높은 학업성취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스트레스의 효과와 결합이 되면 성적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더욱 취약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결국, 높은 학업성취 자체가 초등학생들이 삶에 만족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강력한 심리적 압력, 스트레스와 복합될 경우, 오히려 높은 학업성취를 이룬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불만족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쉽게 받는다는 선행연구(Luthar,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거나 높은 학업성취를 기대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가족과 학교 환경에서 더 많은 관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요인의 중재효과 중에서 소득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다면 소득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애착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만, 막상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득만이 스트레스 효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상황에 아이들이 처한다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적절한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 소득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아이들의 경우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민감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높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저소득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삶의 질과 복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전국적인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기존 자료를 이차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변수 선정 및 측정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횡단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으나,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 중재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과연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는 아동 자신의 복지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복지에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이것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별히 취약한 아동들은 어떠한 아이들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이 맺는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결하여, 어린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학교, 사회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 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283-316.
- 곽수란(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1호, pp.1-21.
- 김경신(199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pp. 12-25.
- 김길임,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제23권 제5호, pp. 139-151.
- 김선숙, 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5-29.
- 김희수, 윤은종(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 93-115.
- 박소영, 문혁준(2005).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9호, pp. 71-84.
- 박영신 외(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 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1호, pp. 57-76.
- 박영신 외(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1호, pp. 94-118.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메커니즘. 한국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 147-165.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pp. 357-373.
- 신정이, 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2호, pp. 123-154.
- 윤신기(2004). 초, 중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법간의 관계. 아동교육, 제13권 제2호, pp. 239-251.
- 이경아, 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2호, pp. 213-226.

- 임미향 외(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5권 제1호, pp. 53-67.
- 장영애, 손영미(2006).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제17권 제4호, pp. 137-149.
- 정동화(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 *교육문제연구*, 제9집, pp. 205-223.
- 정연옥, 이민규(2006). 이혼가정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제4호, pp. 689-708.
- 조미형 외(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5권, pp. 81-97.
- 황창순(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1호, pp. 201-225.
- 황혜정(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 193-216.
- 황혜정, 김순자(2001). 초등학생의 행동특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 303-317.
- Adelman, H. S. et al.(1989). Minor'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ife circumstanc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 20, pp. 135-147.
- Agnew, R. et al.(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 40 No. 1, pp. 43-71.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Sage.
- Bradley, R. H. & Corwn, R. F.(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Rev. Psychology*, Vol. 53, pp. 371-341.
- Brenda, W. J . H. Penninx et al.(1997). Direct and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oping resources in individuals with arthritis. *Social Science Medicine*, Vol. 44 No. 3, pp. 393-402.
- Chang, L. et al.(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7 No. 2, pp. 182-189.

- Dumont, M. & Provost, M. A.(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istr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Vol. 28 No. 3, pp. 343-363.
- Ehrhardt, J. J. et al.(2000). Stability of life-satisfaction over tim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 pp. 177-205.
- Flouri, E. & Buchanan, A.(2002). Life satisfaction in teenage boys: the moderating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Vol. 28, pp. 126-133.
- Greenspoon, P. J. & D. H. Saklofske(199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Vol. 15, pp. 138-155.
- Gullone, E. & R. A. Cummins(1999). The comprehensive quality of life scale. *Behaviour Change*, Vol. 16, pp. 127-139.
- Huebner, E. S. et al.(2000).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reports. *Canad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6, pp. 53-64.
- Huebner, E. S.(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6, pp. 3-33.
- Leung, J. & Leung, K.(1992).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2, pp. 653-669
- Li, A. T. et al.(200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urban African-American youth. *American J.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9, pp. 21-35.
- Luthar, S. S.(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62, pp. 600-616.
- Luthar, S. S. et al.(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 543-562.
- Marriage, K. & Cummins, R. A.(2004).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 children: the role of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i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6, pp. 107-122.
- Pungello, E. P. et al.(1996).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children's achievement from middle-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2, pp. 755-767.
- Shek, D. T.(1998). Adolescent positive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a Chinese context. *Psychologia*, Vol. 44, pp. 217-225.
- Valois, R. F. et al.(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iol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Vol. 25 No. 4, pp. 353-366.
- Walker, L. S. & Greene J. W.(1987). Negative life events, psychosocial resources, and psychophysi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6 No. 2, pp. 29-36.
- Wheaton, B.(1985). Models for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6, pp. 352-364.
- Young, M. H. et al.(1995).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ive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7, pp. 813-822.
- Zimmerman et al.(2000).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buffering effects for urban African-American male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8 No. 1, pp. 17-33.

ABSTRACT

How Do Personal, Family, and School Resources Moderate the Effect of Stres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ang, Yoo-Jean*

This study explored whether personal, family, and school resources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stres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used was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05. The participants were 2,556 5th graders living in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school resources such as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ainly moderated the influence of stress on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family income, peer attachment buffered stress. That is, they were all protective factors. However, higher academic achievement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tress and this made the negative effect of stress on life satisfaction worse. In other words, academic achievement was a factor of vulnerabilit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greater concern and support should be directed at the students who were more vulnerable to stress such as low-income students or high achieving students by both family and school.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protective and vulnerability process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7월 10일, 심사완료일 : 7월 10일

* HanSei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Pull-time lecturer